

불교계 중국어 표기 혼용, 바로잡아야

중국계 국문학자 소열령 박사, <불교평론> 55집에서 주장

“어차피 중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 원음표기는 무의미하다. 한국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 방식인 한문 한자음 표기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성연’ ‘성원’ ‘성운’. 세 표기는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을 한국에서 표기하고 있는 말이다. 최근 사회의 외래어 표기 방법이 도입되며 불교계에도 이처럼 외래어 표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교용어를 한국한자음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열령 박사(성균관대 중어중문학 박사)는 최근 <불교평론> 55집에 실린 ‘불교 관련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문제점’ 투고 글을 통해 “최근 불교관련 기사와 서적에서 표기방식 혼용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 발음 대로 표기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 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박사가 예시로 제시한 교계 신문과 논문 등의 자료를 보면 ‘구룡화사’를 ‘구룡화사’로, ‘자제공덕회’는 ‘조지공덕회’로 표기하는 등 최근 중국관련 지명 및 고유명사를 쓰는 용어가 다양했다.

소 박사는 “외래어 표기 원칙은 현지발음대로 적는 것이지만 현재 중국어 외래어 표기의 경우 어차피 현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표기”라며 “현지 발음을 한글로 표기할 것조차 각각각색으로 다양해 독자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맹주역 박사 등 중국 어문 학자들이 외국에서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면 중국인들이 오히려 발음이 이상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소 박사는 완벽히 중국 현지음 대로 표기할 시 한국어 음운규칙에 부합되지 않

중국인도 외래어 표기 못알아 들어

불교는 한국한자음이 대다수

최근 외래어표기 도입하며 혼란

는 ‘벤’ ‘멘’ 등과 같은 기형음절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소 박사는 이어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로 전자는 한국한자음으로, 후자는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소 박사는 “맹자(孟子)는 과거인으로 ‘맹자’로 표현하고 맹자의 후손은 맹을 ‘맹’으로 표기해 조상과 후손의 성씨가 달라진 상식에 맞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표> 불교계 중국어 표기 혼용 사례(소열령 박사 글에서 인용)

중국어를 모르는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 조지(濟濟)의 전신은 ‘조지공덕회’(慈濟功德會)로 1966년 ‘정연’(證嚴)이... -조계종 불학연구소 편찬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 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스님은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를 설립한 ‘증엄’(證嚴) 스님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이해론>
- 지금도 ‘파구산’(法鼓山)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승들은 일본어를 필수로 해야 한다. - 불광연구원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 우리의 노력으로 ‘법고산’(法鼓山)은 대만의 4대 불교조직의 하나가 되었다. - 성업 선사 지음 <눈 속의 발자국> 성업선사 자전
같은 기사 내에도 표기 원칙이 혼용되는 사례
- 미국 ‘만불성성’(萬佛聖城) 방장 ‘형리’(恒律) 스님과 스님 18명이 방한해 3대 총림 등 주요 사찰 순례에 들어갔다.
- <불교신문> 2012년 10월 4일 ‘미국 만불성성 방장 형리 스님 방한’ 기사

고 말했다.

소 박사는 불교용어에 있어 대응보전, 지장전 등이 고유명사가 된 것과 같이 불광산, 법고산사 등 불교용어의 한국한자음 표기가 고유명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박사는 “법고산사를 보면 불전사물 중 ‘법고’와 법고산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 한자음은 언어학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원음 표기만을 고집한다면 이 표기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 박사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관성과 전통,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국 인명과 지명을 자국 한자음으로 읽는 반면 한국에서는 최근 전통 한자음을 버리고 다른 나라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받음한다. 이는 외래해 토착화한 용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불교계에는 조선시대 불경 언해 문헌과 근현대 스님들의 한글 법어집이나 선행 번역을 통해 한국한자음이 자리해온 만큼 불교계 만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끝으로 “중국어 고유명사 표기에 불교계에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지혜를 하나로 모아달라”며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신행 대표, 108산사순례 ‘제조명’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미나

‘선목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기도회’와 서울 조계사 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자 스님의 기초발표를 기점으로 △박규리 동국대 강사가 ‘108산사순례의 기도와 형태 분석’ △윤원철 서울대 교수가 ‘108산사 순례의 사회규제 활동’ △이덕진 총남대 교수가 ‘108산사순례에서 엿보이는 불교사상’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 불교에서의 108산사순례의 의미와 성과’ △김성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108산사순례의 실행과 형태’를 각각 발표한다. 학술세미나 총평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맡는다.

선목해자 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7년 동안의 순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걸어 갈 남은 일정을 원만히 회향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6년 9월 시작된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지금까지 총 83곳의 사찰을 순례했다. 특히 농어촌 직거래 장터와 농촌사랑봉사단, 군장병 사랑 초코파 이 보시, 환경사랑 실천, 108장학금, 108효행상, 다문화가정연명기, 108약사여래보시상, 북한동포돕기 공양미 300석 모이기 운동 등을 펼치며 한국 불교 신행 문화의 세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9월 27일 열리는 한반도평화대회를 기념해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온 ‘평화의 불’을 순례 사찰에 분등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보물 지정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9월 2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08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南陽州水鐘寺八角五層石塔)’은 건립 연대가 확실하고, 각부의 부재가 온전하게 유지된 조선시대 유일의 팔각오층석탑이다. 고려시대 팔각석탑의 전통을 이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으로 출토된 사리장엄(舍利莊嚴)과 명문(銘文)을 통해 1493년에 건립된 1628년 중수(重修)됐음이 밝혀졌다.

또 왕실 발원(發願)의 석탑임이 확인됐는데 양식을 보면 기단부(基壇部)는 불상 대좌(佛像臺座)의 양식, 탑신부(塔身部)는 목조건축의 양식, 상륜부(相輪部)는 팔작(八作) 기와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이번엔 보물로 지정되는 ‘남

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봉녕사, 지리산 수정결사 정신과 왕실 효심으로 건립

황인규 동국대 교수, 제1회 봉녕사 역사와 문화 세미나서 주장

“봉녕사는 원각국사 덕소 스님이 지리산 수정사 결사 정신의 발현을 위해 장건한 결사 사찰로 그 연원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 봉녕사가 지리산 수정결사의 정신을 잇는 사찰이라는 발표가 눈길을 끈다.

수일 봉녕사(주지 자언)는 9월 2일 봉녕사 경내 소요삼장에서 ‘봉녕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봉녕사의 근원부터 전근대기 봉녕사의 역사와 변천과정, 봉녕사에 주석했던 고승을 고찰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사진 박스)는 ‘전근대 봉녕사의 역사 검토와 화령전 원찰’ 주제 발표에서 봉녕사의 연원에 대해 고찰했다.

그동안 봉녕사는 인근에 위치했던 광고산 창성사 또는 성장사가 전신이 아닐까하는 추측 만이 있어왔다. 황 교수는 봉녕사

연원에 대해 “창성사는 진각국사 천희가 머물며 화엄종 사세를 진작시키려 했으며 여말 선조 문집류에도 창성사로 나오고 있다. 창성사는 1800년 수일 읍지류에 나타나다가 그 이후 폐사된 듯하다”며 “창성사를 창건한 원각국사 덕소가 결사정신으로 다시 전신인 성장사를 창건하고 조선 초 중수되며 봉녕사로 개칭, 이후 봉녕사로 불리게 됐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어 “봉녕사 전신인 봉덕사가 역사 전면에 크게 부각된 것은 1800년대 순조 대 정조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어진을 봉안할 화령전을 짓고 봉녕이란 사액을 내리면서부터”라며 “순조가 화령전에 제향을 올리는 등 봉녕사는 왕실 원찰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영 중앙승사대 불교학과 교수는 근대의 봉녕사 활동과 지역 포교 거점으로서의 봉녕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봉녕사는 근대에 들어 묘엄 스님 이전과 이후로 크게 사세가 변화하는



근대에 중창된 수일 봉녕사는 비구니 사찰의 대표사찰이었지만 연원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고산에 있었던 창성사와 성장사와의 연관관계 등이 조명됐다.

데 1974년 비구니 강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계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9년 세계 최초로 비구니 올원인 금강올원을 개원하는 등 비구니 사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2009년부터 사찰음식 대향연을 통해 사찰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여성 전문 템플스테이 등 지역문화 선도공간으로서 사찰역할과 기능

을 회복하고 있다”며 “수일지역 제반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녕사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봉녕사 금강올원승가대학원이 주관하는 이 특강은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과 대만 보인, 소인 스님이 강의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5집 원고 모집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2월 31일 발간예정인 <선문화연구> 제15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모집분야는 불교학, 불교사학, 불교문화 및 불교복지 등의 응용불교학 분야로 투고마감일은 11월 15일까지다. 200자 원고지 150매 내의 분량으로 이메일(seonhakwon@daum.net)로 접수할 수 있다.

원고작성요령은 홈페이지(www.

seonhakwon.or.kr/seonli) ‘논문투고 원칙 및 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한편,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와 불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학(禪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늦더위가 시작되어 긴 여름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많이도 더웠던 여름 보내고 가을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암의 계곡에 모여 앉아 소중한 날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9월 24일 (음 8월20일) 화요일

| 장 소 - 청 암 사 (054-439-9511)

| 총동문회의 - 오후 7시

청암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도림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중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